



# 이메일이 지고 메신저가 뜬다

## - e러닝을 위한 제언 -

이 옥 화 |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I. 서론

효과적인 교육은 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학습자, 학습 내용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 사이버 세상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농업 사회로부터 현재의 정보 강국으로 압축 성장했다. 현재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의 96.7%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세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대학사회의 구성원들간의 세대 격차도 그 예외가 아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어느 세대와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생활환경의 일부로 향유하면서 커운 세대이다. 이들에게 정보통신이란 자신과 늘 함께 하는 인프라로, 휴대폰과 인터넷 속에서 공부하고 놀고 연결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기존 세대와는 달리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자란 이들 대학생 연령층은 N세대, 신세대, X세대, 신인류 등으로 명명되며 이들에 관한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황상민, 2004).

대학생은 17~18세부터 30~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연령층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에 분포한다. 이들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교수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인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무엇인지, 이들은 선호하는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자로서 이들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이들 문화를 교육환경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메일은 인터넷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부동의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다. 이메일의 대중화와 더불어 거대 인터넷 기업이 생겼고, 이메일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들이 속속 제공됨에 따라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그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던 이메일에 학생들의 반응이 늦어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반응이 없어지는 현상을 볼 때 아직도 이메일이 확고부동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이옥화, 2004). 이메일 사용의 감소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를 집계한 페이지 뷰의 감소세로도 나타났다.(조선일보, 2004. 12. 10)

“최대의 이메일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서비스 페이지 뷰는 2003년 10월 38억 건에서 2004년 10월 30억 건으로 20% 이상 줄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과 미니홈페이지의 사용은 급격히 늘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월 문자 메시지 전송 건수는 2003년 10월 27억 건에서 2004년 10월 38억 건으로 40% 이상 급증하였다. 미니홈페이지의 경우도 급증하였는데, 싸이월드는 2003년도 10월에 6.5억 건이던 페이지 뷰가 2004년도 10월에 170억 건으로 늘었다”고 한다(김기홍, 2004).

또 메신저를 근무 시간에 과도하게 사용하여 회사의 정보 유출이나 근무 시간을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일부 회사들은 상용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기관내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 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메신저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다.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버 커

뮤니케이션 행태는 아직 새로운 분야이며, 초고속 인터넷망 환경이 갖추어진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와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김기홍, 2004).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어떤 사이버 매체를 선호하는지, 아울러 어떻게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를 할 필요가 생겼다. 대학에서의 교육환경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행태는 이러닝의 개발 및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달과 함께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사이버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호도는 이용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행태가 다를 것이다(유승훈, 2003; 최병목, 2002; 이옥화·조미현, 2004; 이광훈·유선실, 2004). 아울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전공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사이버 미디어의 선호도, 특히 사이버 매체의 중심에 있던 이메일의 활용 현황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매체 사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 활용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성별, 전공 및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커뮤니케

이전 방법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매체로 사용되던 이메일 사용에 관한 분석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이러닝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II.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특성

### 1. 사이버 미디어의 대체 및 보완 현상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나 오락적 내용을 전달하고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오택섭·김대식·강미선, 200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오택섭·김대식·강미선,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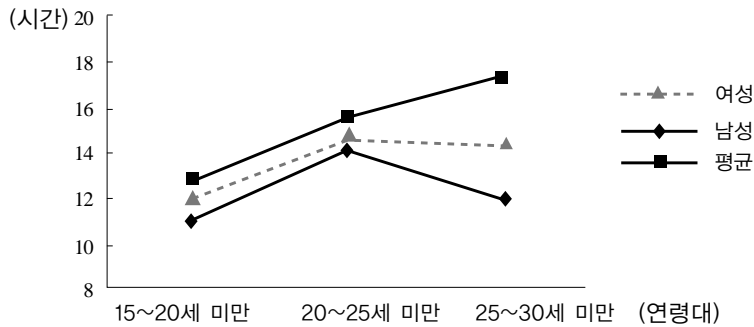
- 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은 목적지향적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매체를 이용한다. 기존의 매체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혹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이 한번 틀어 놓으면 일방적으로 내용이 주어져 이용자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것과 달리 이메일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참여는 목적이 분명할

때 일어난다.

- ②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매체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즉 사이버 커뮤니케이션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충족원이 아니며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기능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 이메일로 정보를 전하던 기능은 인터넷의 메신저나 휴대폰의 문자보내기 와 기능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 ③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해 미디어를 선택한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한다.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료를 내고 만족감을 얻는다.
- ④ 미디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욕구의 충족정도가 달라진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집에서 편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과 직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에는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다.
- ⑤ 미디어 내용은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미디어(이메일, 채팅룸, 유즈넷 등)에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의해 이용자가 느끼는 충족감은 다르다.

### 2. 인터넷 사용 시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15~20세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97%이고, 25세 미만까지는 남녀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훈·유선실, 2004).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30세 미만까지의 연령층의 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였는데(그림 1), 15~20세,



(그림 1) 주별 1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시간

20~25세 그리고 25~30세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0세군이 가장 활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평균 14.3시간이었다. 그러나 성차는 가장 많이 벌어져 여성은 12.1시간 남성은 17.5시간으로 나타났다.

### 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글쓰기

한혜경과 박혜진(2002)은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연구에서 비동시적 토론 중심으로 성별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비교하였는데 여성과 남성은 글쓰기 참여에서 양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질적으로는 남성이 토론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옥화와 임연옥(2003)은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토론을 분석하여 동시적 온라인 토론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참여하는데, 비동시적 토론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 보고하였다. 여성들이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사회적 연대감 형성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특성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휴대폰 사용 유형 연구

휴대폰 사용이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급기야 수능의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휴대폰의 부정적 사용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로 미국에서도 학교내에서 휴대폰의 사용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병목(2002)은 중고교생의 휴대폰 사용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자신을 사회에 연결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자기 옆에 함께하는 자기 자신의 확장으로 보고 미디어의 인간화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재미난 점은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이 지출하였다. 휴대폰 전화는 동성과 이성 친구 모두로부터 비슷한 비율로

받았으나 그 중 부모님께 받는 것이 제일 비율이 높았다. 사용 목적은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청소년은 평균 13.9명의 동성친구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며 평균 6.2분 통화한다고 하였고, 반면 6.2명의 이성친구와 평균 7.6분 통화한다고 하였다. 음성 통화는 하루 3~4회, 문자메시지는 하루 약 20건 정도한다고 하여 문자 메시지 사용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학생은 휴대폰의 즉각성을, 남학생은 실용성을 더 중요한 기능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최병목은 휴대전화의 사용동기가 자기정체성, 자신만의 공간확보, 자녀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욕구, 일상생활의 조율이라고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서울 및 충청도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설문지 800부를 전공과 연령에 따라 고르게 배포하여 650부를 수거하였다(81%의 수거율). 설문지 내용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체, 이메일의 사용 여부, 사용의 목적,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메일을 대체하는 매체인 휴대폰과 메신저, 그리고 미니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두 번에 걸친 파일럿 연구가 이루어졌다. 9월 초에 C대학의 같은 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어 9월 중순에 전공이 각기 다른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파일럿 테스트 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함께 연구 진행과 결과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파일럿

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이버 매체의 종류나 활용 내용, 이메일의 사용 목적 등의 항목이 세분화되고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전공별 결과를 살펴 보았다. 이광훈과 유선실의 연구(2004)에 의하면 25세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의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25세 이하의 연령층이 97%를 접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의 성별 격차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연구이므로 전공에 따라 다른 결과나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변인으로 볼 것을 건의하여 이를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4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에 걸쳐서 우편배달로 설문지를 돌렸고, 각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통해 수집이 이루어졌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배경정보는 <표 1>에 정리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ver. 1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또는 .01이다.

#### 2.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는데(표 2), 항목에 대면소통(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과 함께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포함하여 가장 선호하는 매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대했던 대로 직접대면소통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다(62.2%). 재미있는 것은 직접대면 소통보다 더 선호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표 1〉 응답자의 개인배경 정보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성별	남	359 55.2
	여	291 44.8
	계	650 100
연령	19세 이하	195 30.0
	20~24세	336 51.7
	24세 이상	119 18.3
	계	650 100
전공	이공계열	355 54.6
	인문사회계열	292 45.4
	계	647 100

(15.9%), 메신저 사용(6.8%), 블로그(5.7%), 그리고 휴대폰 음성전화(5.4%), 이메일링(2.8%), 유선전화(0.9%)를 선택하였다. 이메일은 그 선호도 순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전공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직접대면소통을 훨씬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르게 한 항목에 휴대폰 음성(31.3%), 휴대폰 문자메시지(30.2%), 메신저(15.2%), 블로그(6.7%), 이메일(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휴대폰 음성전화(32.4%), 휴대폰 문자메시지(28.3%), 메신저(17.1%), 블로그(6.2%), 이메일(5.9%), 유선전화(5%)의 순이다. 여학생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32.4%), 휴대폰 음성전화(29.9%), 메신저(13%), 블로그(7.4%), 이메일(7%), 유선전화(3.9%)의 순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휴대폰 음성전화를 더 선호하고 여학생은 문

자메시지 보내기를 선호하는 것이 특이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1, 2위 선호도가 서로 바뀌었을 뿐 그 이후의 순위는 같다.

전공별 직접 대면 커뮤니케이션 선호도를 보면, 이공계열이 57.3%인데 반해 인문사회계열은 68.2%에 이른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직접 대면소통 방법을 10%이상의 차이를 두고 선호하고 있다. 전공별로 커뮤니케이션 선호도를 보면, 이공계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29.1%), 휴대폰 음성전화(27.9%), 메신저(18.2%)의 순이고 인문사회계열은 휴대폰 음성전화(35.3%), 휴대폰 문자메시지(31.4%), 메신저(18.2%) 순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공계열학생들에 비해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전공의 학생들이던지 휴대폰 음성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신저 프로그램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0~23세 연령군이 전체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군으로 나타났

〈표 2〉 대면소통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선호도

커뮤니케이션 방법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대면소통	62.1	62.4	57.3	68.2	61.1	65.1	55.9	62.2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14.6	17.6	15.3	16.8	18.7	15.5	12.7	15.9
인터넷 메신저프로그램	9.0	4.1	8.5	4.8	5.7	5.4	12.7	6.8
싸이월드 등 블로그 이용	4.8	6.9	7.1	4.1	6.2	6.0	4.2	5.7
휴대폰 음성전화	5.6	5.2	6.2	4.5	3.6	4.5	11.0	5.4
이메일링	3.1	2.4	3.7	1.7	3.1	2.7	2.5	2.8
유선 음성전화	0.8	1.0	1.7	0.0	1.0	0.9	0.8	0.9
계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233		.013		.081			

〈표 3〉 커뮤니케이션 방법 선호도

커뮤니케이션 방법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휴대폰 음성전화	32.4	29.9	27.9	35.3	26.2	35.6	27.4	31.3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28.3	32.4	29.1	31.4	33.7	29.7	25.7	30.2
인터넷 메신저프로그램	17.4	13.0	18.2	14.1	15.0	12.7	23.0	15.2
싸이월드 등 블로그 이용	6.2	7.4	7.1	8.4	8.6	6.8	3.5	6.7
이메일링	5.9	7.0	8.5	3.9	5.3	5.6	10.6	6.4
유선 음성전화	5.0	3.9	5.0	3.9	5.0	3.1	6.2	4.5
기타	4.8	0	4.2	3.0				
P-value	.611		.137		.064			

〈표 4〉 휴대폰의 용도

휴대폰의 용도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문자메시지 전송	59.5	72.7	62.6	68.6	79.0	63.4	49.1	65.4
음성통화	34.3	23.6	32.0	26.6	14.9	31.6	47.3	29.5
휴대폰 결제	2.7	2.2	3.0	1.8	3.3	1.9	2.7	2.4
사진 촬영	0.9	0.7	0.6	1.1	0.0	1.6	0.0	0.8
기타	2.6	0.8	1.8	1.9	2.9	1.5	0.9	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value	.070		.182		.000			

다. 휴대폰의 사용법이 연령층별로 확연히 다른 것이 눈이 띄는 결과이다. 19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의 경우 휴대폰의 활용은 음성전화 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의 음성전화를 문자보내기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휴대폰의 음성전화 용도나 문자메시지 보내기 용도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메신저는 24세 이후에 확연히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24세 이후의 연령군은 이메일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로 텍스트를 치는 것에 익숙한 것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이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휴대폰의 용도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한 항목에 과반수의 학생들은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들었다. 그리고 음성통화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휴대폰이 본래 개발된 목적에서 많이 진화된 모습이다. 휴대폰은 이제 유선 전화의 대체가 아닌 고유의 매체의 영역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새로운 것에 더 빨리 적응하는 여성의 특성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전공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확연하다. 어린 학생일수록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요한 기능으로 본다.

### 1) 이메일 사용

대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건을 주지 않고 본인의 생각에 자주 사용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정의적 판단을 보고자 하였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주는 이메일 주소 및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 등 여러 개의 이메일주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메일 주소는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이를 자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57.5%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표 5). 특히 남학생(61.9%)과 어린 학생일수록(69.4%)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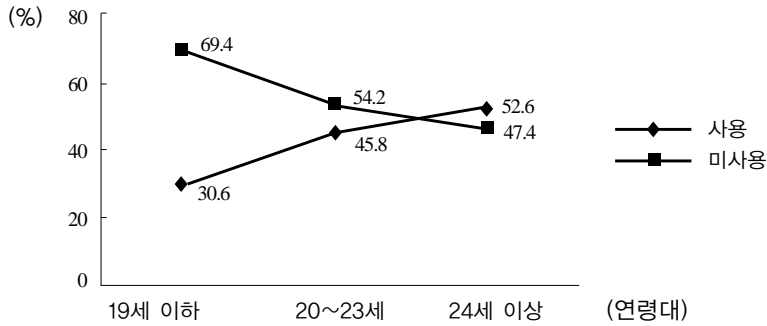
이메일을 사용하는 이유를 순위에 관계없이 복수개로 답하라고 한 항목에 과일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이메일로 보내는 정보를 받기 위해, 안부를 묻기 위해, 근거 자료를 남기려고 등의 순위로 들었다.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을 하나만 고르라는 질문에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가 단연코 압도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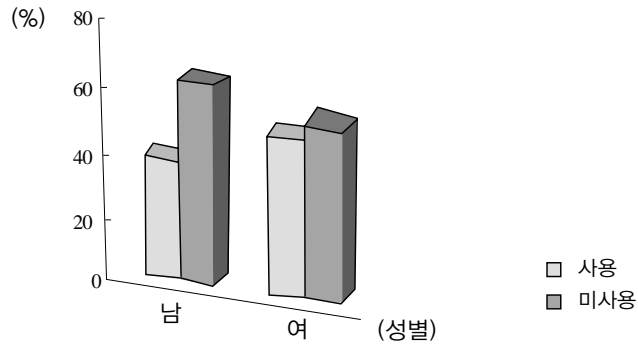
〈표 5〉 이메일 사용 현황

이메일 사용 여부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사용	38.1	47.8	44.5	39.8	30.6	45.8	52.6	42.5
미사용	61.9	52.2	55.5	60.2	69.4	54.2	47.4	5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value	.014		.232		.000			





(그림 2) 연령별 이메일 사용 현황



(그림 3) 성별 이메일 사용 현황

고 답신이 즉각 오지 않아서가 그 뒤를 이었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봐야하는 불편을 그 다음의 이유로 들었다(표 7).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즉각 답신이 오지 않아서에 관해서는 적게 나타난 반면, 스팸 메일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또 인터넷 접속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메일이외의 이유로 '답신이 즉각 오지

않아서'를 들고 있는데, 스팸 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메일 사용자들은 메일을 보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답신이 늦어지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블로그 사용

싸이월드와 같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74%인데, 여성이 더 많고, 인문사회계열학생이 더 많고, 연령이 어릴수록 많다.

〈표 6〉 이메일의 사용 이유

이메일 사용 이유	성별		진공별		연령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파일을 받기 위해	33.0	33.9	33.9	32.8	35.1	34.7	27.6
다른 곳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	21.3	22.7	20.5	23.7	22.9	21.8	20.9
안부를 묻기 위해	17.0	17.4	15.4	19.2	14.9	17.4	19.6
근거 자료를 남기려고	10.6	11.9	10.3	12.2	10.8	11.1	12.0
상대가 이메일을 원해서	7.3	4.9	7.7	4.5	5.6	6.2	7.1
만남을 약속하기 위해	2.9	3.1	3.4	2.5	2.1	3.3	3.6
영상메시지를 받기 위해	2.6	2.0	2.8	1.7	1.4	2.3	3.6
외국과 통신하기 위해	2.4	2.7	3.1	1.9	4.2	1.6	3.1
다른 통신방법이 없어서	1.6	0.8	1.5	1.0	0.3	1.5	1.8
기타	1.3	0.6	1.5	0.4	2.8	0.2	0.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7〉 이메일 사용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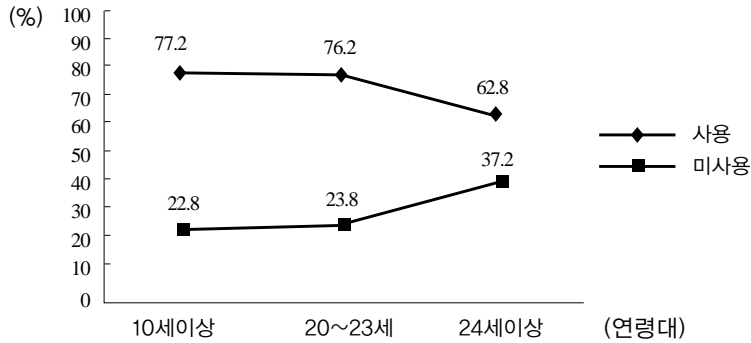
이메일 사용시 불편한 점	성별		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62.5	68.2	65.9	63.9	66.7	62.8	68.7	65.0
답신이 즉각 오지 않아서	19.6	15.0	16.6	18.8	19.8	18.7	10.4	17.6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11.4	11.5	12.3	10.4	5.7	12.7	17.4	11.5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봐야 하므로	4.0	4.5	2.9	5.9	5.2	4.2	2.6	4.2
기타	2.5	0.6	2.3	1.0	2.6	1.5	0.9	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value	.204		.209		.033			

블로그를 소유하고 활발히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블로그를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3이 된다. 학생들은 블로그에서 방명록에 글 남기기(46.9%), 사진첩 꾸미기(23.4%), 친구와 채팅하기(10%), 다른 사람 블로그 방문하기(10%)의 순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명록에 글 남기기나 다른 사람 블로그 방문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은 사진첩을 꾸미거나 친구와 채팅하는 것, 공부에 필요한 정보찾기를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방명록에 글 남기기는 어린 학생일수록 많이 하는 일이다. 반면 사진첩 꾸미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한다. 공부에 필요한 정보 찾거나 친구와 채팅하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이 한다.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블로그로 하는 활동은 크게 방명록에 글 남기기와 사진첩 꾸미기로 약축해 볼 수 있다.

〈표 8〉 블로그 사용 현황

블로그 사용 여부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사용	71.8	75.9	72.6	75.9	77.2	76.2	62.8	74.0
미사용	27.4	24.1	27.4	24.1	22.8	23.8	37.2	26.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value	.170		.350		.011			



〔그림 4〕 연령별 블로그 사용 현황

〈표 9〉 블로그에서 하는 일

이메일 사용시 불편한 점	성별		전공별		연령별			계
	남	여	이공계	인문사회	19세 이하	20~23	24세 이상	
방명록에 글 남기기	43.9	50.5	43.2	51.1	55.8	45.9	33.3	46.9
사진첩 꾸미기	24.6	22.0	28.2	17.6	19.7	23.1	31.3	23.4
다른 사람 블로그 방문하기	9.1	11.0	10.4	9.5	6.8	12.2	8.8	10.0
친구와 채팅하기	11.0	8.7	8.5	11.8	8.8	10.6	10.0	10.0
공부에 필요한 정보 찾기	5.7	2.3	4.2	4.1	2.7	3.1	10.0	4.1
자기방 꾸미기	3.0	4.1	3.5	3.6	2.7	4.3	2.5	3.5
기타	2.6	1.4	2.0	2.3	3.4	0.8	3.8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value	.048		.311		.012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메신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기가 많이 사

용되고, 이메일의 사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들어났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행태는 전공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차이는 이메일 사용

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보내기에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이메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기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글쓰기에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은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이 증가하는데 이메일 사용시 불편한 사항, 답신이 즉각 오지 않아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9.4%이었다. 어린 학생일수록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불편 사항으로 느꼈다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11.7%이다. 나이가 든 연령층일수록 연결해야 하는 수고에 민감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져서 사소한 불편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듯하다. 이에 반해 모든 연령층에서 60%대를 넘는 최고의 불편 사항인 스팸 메일은 연령군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스팸메일이 이메일 사용을 저조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른 사이버 매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휴대폰에 스팸 전화나 메시지가 많이 범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메일보다도 더욱 자극적이다. 이메일은 원할 때 들어가 보지만, 휴대폰 전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다른 매체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닝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이러닝을 하는데 이것들이 원치 않을 때 과도하게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좋은 매체이지만, 부작용

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하는 사용자를 선별하여 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인 파일받기, 다른 곳에서 이메일로 보내는 정보 받기, 안부 묻기, 근거 자료 남기기 등을 이러닝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연령이 어릴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하는 일중 가장 많이 하는 '방명록에 글 남기기'를 연령이 어릴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이때의 글쓰기는 답글이나 간단한 안부 정도의 글쓰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령이 어려도 글쓰기에 익숙하고 잘 동참한다는 점을 이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블로그의 특성을 이러닝 환경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명록에 글 남기기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빠른 속도의 쌍방향성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학자들은 학생들간의, 또 학생과 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의 잠재적 교육 기능에 기대를 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사이버 교육환경, 즉 이러닝에 반영되어 대학생들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을 광범위하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발달과 더불어 계속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의 진화 방향은 향후 이러닝의 방향 제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활용 행태는

접속성, 즉각성, 동시성, 이동성, 재미, 멀티미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비쿼터스 컴퓨터 환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욱 만족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이러닝에서 접목시켜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메일의 대체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이메일은 더 이상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매체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메신저나 휴대폰의 메시지 보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매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어야 하지만, 이메일로 하였던 많은 기능들을 다른 매체에서 대체하고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 간단한 공지 사항이나 정보 제공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접속성의 제공이다. 최소영(2004)은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순간이동의 대리 경험으로 보았다. 편지는 인터넷을 통해 순간이동을 하고, 음악CD 구입도 인터넷에서 가게까지 가지 않고 순간이동으로 파일을 다운해 받는다. 바둑 게임을 하고 싶으면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 속에서 즉각 만나서 대국을 벌인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는 채팅으로,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과는 화상채팅으로, 나의 개성은 아바타로 나타내며 변신을 거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닝의 환경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언제나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간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들간에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동시성/즉각성이다. 학생들은 기다리는 것에 매우 서투르다. 이들에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

생들의 질문에 가급적 즉각적인 응답이 도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호작용하는 이들에게 직접 정보가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만 정보가 주어지던 상태에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넷째,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활성화이다. 이미 블로그의 사용은 대세가 되었다. 이것을 이러닝에서도 활용하여야 한다.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기존의 다수가 모여서 하던 커뮤니티 활동을 일인이 가능하게 하여 개인과 다수의 커뮤니티의 중간 형태로 '일인 커뮤니티'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친분이 쌓인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를 할 수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은 새로운 게임으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어진 게임의 물 속에 승부를 내는 유한 게임과는 달리(스포츠 게임이 이에 해당하는 예임), 블로그는 취미활동이나 개인 학습처럼 게임을 지속하는데, 게임의 규칙은 참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 바뀌어 나간다(이강룡, 2004). 이러한 무한 게임은 앞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방향이다. 대학생들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성향은 끝나지 않는 놀이가 계속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이러닝에서 자신만의 맞춤형 학습 관리 같은 기능이 블로그 형태로 도입되어 블로그의 재미를 제공하는 학습 블로그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텍스트에서 멀티미디어로 정보가 가공되어야 한다. 이메일보다는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테스

트보다는 멀티미디어로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선호한다. 멀티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이미지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곳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대개의 이메일들이 멀티미디어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게 해 주는 블로그들이 인기를 누리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짧은 단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깊은 사고와 성찰을 요하는 고도의 학습 훈련이므로 이를 고려하되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매체로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현재의 이러닝 환경에서는 주로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 사람들이 영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시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반미옥(2005). 예비교사의 사이버 교육에 대한 참여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오미영(2004).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3 : 휴대폰 사용 · 정보화. 사회조사연구소보고서.

이강룡(2004). 인터넷 커뮤니티 역사. 과학문화, 73, 12-13.

이광훈 · 유선실(2004). 인터넷미디어 이용 실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04-05.

이옥화(2004). 이메일이 쌓이는 이유. 전자신문 미래포럼 칼럼(2004.11.17)

이옥화 · 임연옥(2003). 온라인 수업의 실시간 토론 내용 분석. 교육공학연구,

19(1), 29-50.

이옥화 · 조미현(2004). 예비교사의 이러닝 인식 및 사용 교수. 학습 전략 실태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7(6).

오택섭 · 김대식 · 강미선(2002).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6, 71-103.

유승훈(2003).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의 성별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정보화정책, 10(4), 110-126.

최병목(2002). 중고교생의 휴대폰사용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98-417.

최소영(2004). E메일로 나를 전송할 수 있을까?. 과학문화, 63, p.18.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std.kedi.re.kr/jcgin-bin/index.jsp>

한혜경 · 박혜진(2002). CMC의 성별 커뮤니케이션 패턴 비교 분석: 참여방식과 글쓰기 스타일을 중심으로. Nuri Media CO., Ltd.

황상민(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21세기북스.

### 이옥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석 · 박사학위(컴퓨터교육/교육공학)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과 교육정보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이며, 국내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이러닝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